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참고자료**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과장(044-203-5320), 김건혁 사무관(5325)

윤상직 장관, 7. 30. ~ 8. 1. "동남권 원전 현장 방문"

- 발전소 현장점검 및 직원 격려, 지자체·지역주민 면담 -

-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점검 및 공론화 위원 간담회 -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하계휴가 기간에 동남권 원자력발전시설 3곳(고리·월성·한울)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안전한 원전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.

< 동남권 원전 현장 방문 개요 >

○ 일시: '14. 7. 31. (목) 09:30 ~ '14. 8. 1. (금), 20:00

○ 장소: 고리본부(신고리#3), 월성본부(월성#1,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), 울진본부(울진3발전소, 뮤직farm 페스티벌 개막식)

○ 이번 방문은 지난 한빛원전 방문('14. 7. 11.)에 이어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('14. 6. 30. ~ 8. 29.) 안전한 원전 운영을 빈틈없이 하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짐.

○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처리현황을 점검하고, 앞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

□ 윤상직 장관은 신고리 3호기 케이블 교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원전관리를 당부하고 지역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.

○ 윤장관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 심사중인 월성 1호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점검하고, 철저한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원전정책 추진하겠다고 약속함.

□ 또한, 월성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장 점검과 공론화 위원 간담회를 통해

○ "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,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해 달라"고 요청함.

□ 마지막 방문지로 한수원이 주최하는 "울진 뮤직farm 페스티벌"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

○ 국내휴가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원전과 지역 주민의 상생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함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김건혁 사무관(☎ 044-203-53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